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교육적문제



김 영 매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I. 머릿말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전문적 간호교육이 발전되면서 간호원의 성격, 적성 또는 효율적인 간호활동의 방안등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간호원의 사회 계층적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간호원직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봉사적정신에 있든지 또는 외국에 가서 취직하기 쉬운데 있다든지 어쨌든 일부인에게는 간호원직이 매력적이며 선망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계층적 요인을 검토하는 일은 전문직수행의 효율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Ottawa(1957)의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 계급의 장벽이 붕괴되고 소득의 균형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개개인의 문화적, 경제적 위단의 구분을 규정짓는 요소로서 직업선택 문제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자는 자기직무에 매우 만족하여 능률을 올리고 있는 반면 어떤자는 불만스러운 나날을 보냄으로써 능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계층간의

차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간호원의 사회계층적 배경구조에 관하여 외국에 있어서는 간호원은 주로 중류계층인을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계층적 배경 분포를 조사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계층적 배경에 따른 교육적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A. 연구의 목적과 문제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입학동기, 재학생적 및 졸업후 간호원으로서의 직무 효율성과의 관계를 밝혀 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과 분포의 조사
2. 사회계층적 배경과 입학동기와의 관계 구명
3. 사회계층적 배경과 재학생적과의 관계 구명
4. 사회계층적 배경과 졸업후 간호원 근무성적과의 관계 구명

B. 연구의 이론적기초

1. 계층의 개념

어떤 사회이건 그곳에는 사회계층이라 불리우-

는 사회적구분이 존재하는데 이상백은 유사하거나 같은 사회적지위를 집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되는 사회적범주라고 보고 있으며 다수 학자들도 한결같이 계층간의 서로 다른 가치기준과 욕망이 있는데 이러한 지위의 차이가 인간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형화하는가불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은 사회를 식별하기 위한 분류적개념으로 계급을 사회에 실재하는 실증적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2. 사회계층의 평가기준

여기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측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사람의 직업, 수입, 교육적 배경등을 관련시켜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Warner(1949)³⁾는 사회신분의 특징을 규정하는 지위특성지수(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의 기준으로서 6개를 들고 있다.

그것은 직업의 종류(occupation), 거주지역(ecological area), 가옥의 종류(types of house), 수입의 양(amount of income), 수입의 출처(source of income), 교육(amount of education)의 여섯 가지로서 지위특성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마다 7계급의 순위들 배겨 그 평점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6개 항목에 매겨진 평점의 총 점수에 따라 사회계층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런 기준은 동서양에 따라 또는 선진국과 후진국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국가나 사회에 적용하기엔 제한점이 수반된다고 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체르 직업, 교육, 수입등의 계층분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데는 별 말썬이 없을 것 같다.

C. 사회계층의 구조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이라고 하면 상, 중, 하의 3단계로 나누어 불리워 왔다. 그러나 사얼구조와 사회생활의 양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3단계의 사회계층분류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5단계 또는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 역시 몇 단계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사회계층과 교육

우리가 사회계층에 관하여 연구하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서 김선호⁴⁾는 다음 세가지들을 들고 있다.

첫째로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사회계층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데 큰 힘이 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고, 둘째로 그것이 사회의 현실을 밝혀줄뿐 아니라 사회의 유일한 사회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이고, 셋째로 사회계층 구조는 사회인을 분발시키고 노력하게 하는 매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계층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그러기에 누구나 계층의 상승을 희망하며 이 희망의 실현을 가장 용이하게 달성시켜 주는 것이 교육에 의한 길임을 이상백⁵⁾은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상승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건이요, 방법인 교육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또한 사회계층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소(1961)의 “학교 차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사회계층의 차가 곧

학력의 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은 보고하고 있으며 영국 Floud 등의 연구에 의하면³⁾ 전문적, 관리적 직업의 자녀가 단순노동자의 자녀들의 지능지수 평균보다 높았음을 보고함으로써 사회 계층적 배경에 따른 지능의 차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헌적으로는 사회계층과 학력, 지능간의 높은 상관울 나타내고 있는 연구물이 많음을 찾아 볼 수 있다.

4. 간호원의 직업적 위치

어떤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직업을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나 하는 것을 알아 보는 것이다.

1946년에 미국의 국민 여론조사소가 실시한 국민들의 직업평가에 관한 조사는⁷⁾ 90종의 직업 중에서 간호원은 47위로 보고하고 있다. 1950년 영국에서의 사회학 연구회에서 의 조사에 의하면⁸⁾ 30종의 직업중에서 간호원은 14위로 보고하고 있다.

1963년에 이화여대 사회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⁹⁾ 88종의 직업중에서 간호원은 29위로 보고되고 있다.

사람들이 간호직을 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배경만이 유일한 동기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간호직에 대한 매력은 각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매력의 강도가 높은 계층 출신일수록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떠한 직업에서건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능률 또는 작업효과와는 정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간호직이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며 과연 그 계층출신의 간호원이 가장 적합한 간호원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여러 측면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의 도구

(1) 사회계층 평가표 ; Warner 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세 요인, 즉 직업의 종류, 수입액수의 상황, 교육배경을 각각 11단계의 항목으로 세분한 평가표를 제작하였다. 각 항목별 1단계를 1점씩 각 요인별 11점 만점으로하여 총점 33점중 27점이상을 상류계층, 12점이하를 하류계층, 중간점수를 중간계층으로 환산하였다.

(2) 입학동기를 묻는 질문지 ; 예비조사에 나타난 입학동기를 16개 항목으로 유형화하여 만든 질문지이다.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재검사법에 의해 $r=0.82$ 로 나타났다.

(3) 근무평정표 ; 졸업간호원의 병원근무성적을 알아보기위한 평점표로서 10개의 평점기준을 5단계 평정으로 실시한 척도표이다.

(4) 각종기록문헌 ; 재학생적과 가정상황을 알아보기위해 학적부와 학생 생활기록부 또는 학생 카드를 분석도구로 선정, 이용하였다.

B. 연구의 대상과 표집

(1) 서울시내 간호대학 학생 1, 2년생을 중심으로 다음과같이 표집하였다.

표-1. 연구대상의 표집

대학별학년	가림	고려	경희	서울	연세	이화	한양	지
1	65	—	29	71	76	42	—	283
2	42	105	28	74	72	25	19	365
3	49	—	—	—	—	—	26	75
4	54	—	—	—	—	—	—	54
계	210	105	57	145	148	67	45	777

(2) 졸업간호원의 근무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성보병원에서 근무중인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졸업생 72명을 무선표집 하였다.

C. 연구 및 자료처리의 방법

(1) 각 학교당국에 의뢰하여 가정상황 기록카드에서 자료를 발취, 기록하여 사회계층 평가표에 전기하여 평정하였으며 질문지는 본인 구자 자신의 입회하에 질문지를 배부, 설명, 즉시 회수하였다.

(2) 분석된 자료는 X^2 (Chi-Square Method) 산출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은 5% 수준에 한하였다.

III. 성 적

A.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의 분포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의 분포는 어떠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 분포

사회계층	상	중	하	계
보호자수	198	384	195	777
%	25.4	49.5	25.1	100.0

표-2에 의하면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은 74.9%가 중류계층 이상임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전국 교육대학 여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의 분포¹⁰⁾와 비교해보면 표-3과 같다.

표-3. 사회계층적 배경의 대학별 비교

구 분	상	중	하	계
간호대학	198 (25.4)	384 (49.5)	195 (25.1)	777 (100%)
교육대학	155 (14.5)	469 (43.7)	448 (41.8)	1072 (100%)
계	353	853	643	1849
df=2	$X^2=139.2$		P<0.001	

표-3에 의하면 간호대학 학생과 교육대학 여학생 집단간에 매우 의의있는 차가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은 중류계층 이상의 학생이 74.9%인데 비하여 교육대학 여학생은 58.2%이며 하류계층이 16.3%나 더 많음을 알 수가 있다.

B. 입학동기의 사회계층적 경향

간호대학 학생들의 입학동기별 순위는 표-4와 같다.

표-4. 입학동기별 순위 (N는 항목별 연인원수임)

순위	동 기 내 용	N	%
1	해의 유학이 가능함으로	436	15.56
2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236	10.21
3	취직이 작되므로	256	9.14
4	부부의 권고로	230	8.21
5	고등학교 성적과 본인의 고교 실력이 간호학과에 맞기 때문에	201	7.17
6	졸업후에도 오랜기간 취업할 수 있음으로	176	6.28
7	해의이민이 작 되므로	167	5.96
8	취직해서 부모, 혹은 형제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156	5.57
9	국성점사의 결과 자기적성에 비추어서	151	5.39
10	간호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141	5.03
11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봉사적인 태도가 강하기 때문에	134	4.77
12	가족중 입원환자가 있었던 것이 동기가 되어서	99	3.53
13	교사의 권고로	92	3.28
14	선대의 권고로	59	2.11
15	서적을 통해 간호직이 좋다고 감명 받은 후	53	1.89
16	친구의 권고로	52	1.86
17	나이팅게일 인성이 본인의 인성 목표임으로	38	1.36
18	좋은 배우자 선택이 용이함으로	34	1.21
19	환자로서의 체험이 주된 작용해서	33	1.18
20	형제의 권고로	3	0.11
21	기타	3	0.11
22	영포를 보고 감명받아서	1	0.04
23	해의여행은 목적으로	1	0.04
계		2802	100

표-4에 나타난 입학동기중 응답이 많은 10개 항목만을 사회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표-5와 같다.

표-5. 사회계층별 입학동기의 비교

df=2

동기별	계층별	상	중	하	계	X ²	P
1	해의유학이 가능하므로	66	200	170	436	68.11	<0.001
2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82	133	71	286	22.9	<0.001
3	취직이 잘 되므로	10	82	164	256	139.5	<0.001
4	부모의 권유로	46	151	33	230	110.3	<0.001
5	고교성적과 본인의 실력에 비추어	60	85	60	201	6.2	<0.05
6	결혼후에드 오랜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32	60	84	176	33.6	<0.001
7	해의이민이 잘 되므로	65	72	30	167	17.3	<0.001
8	가정의 경제적 이유	35	45	74	156	15.3	<0.001
9	직성이 맞아서	42	63	46	151	5.1	N.S
10	간호학 교수가 되기 위해	59	52	30	141	9.5	<0.01

표-5에 의하면 중류층의 학생은 해의유학이나 이민, 봉사직에 근무하기 위하여 또는 부모의 권고 및 자기실력에 비추어 간호대학에 입학했으며 상류층 가정의 학생은 해의이민 또는 간호학교수가 되기 위한 동기가 강하고, 하류층 가정일 수록 해의유학, 취직, 가정의 경제적 이유 또는 결혼후의 취업가능성 때문에 입학하고 있는 경향의 차를 엿 볼 수 있다.

C. 간호대학 학생들의 출신고교별 경향

간호대학 학생들의 출신고교별 분포는 표-6과 같다.

표-6. 출신고교별 분포

순위	학 교 명	N	%
1	진 명 단	81	10.71
2	이 화	73	9.66
3	숙 명 병	68	8.99
4	수 도	49	6.48
5	중 앙	40	5.29
6	정 신	37	4.89
7	창 덕	36	4.76
8	경 기	35	4.63
9	계 성	28	3.7
10	무 학	25	3.31
11	인 일	23	3.04
12	배 화	21	2.78
13	경 회	18	2.38
14	송 의	18	2.38

15	서울사대부고	15	1.98
16	전주	14	1.85
17	충분	14	1.85
18	동덕	13	1.72
19	금탄	12	1.59
20	덕성	11	1.46
21	경남	11	1.46
22	부산	11	1.46
23	상명	9	1.19
24	대전	6	0.79
25	이대부고	6	0.79
26	수원	5	0.66
27	인천, 성심, 진남 각4명	12	4.59
28	광주, 남성, 전주, 영동포, 부산, 성모 각3명	15	2.0
29	순천, 정주, 경북, 서울, 부산, 페레사, 동명, 동익, 신주, 안성, 한양, 강남, 박문, 마산, 전주성심, 신광 각2명	30	3.9
30	월주여자종합, 김천, 군산, 대구, 안동, 포항, 삼일실업, 성실, 채주, 전주기전, 대구호성, 거창, 이리, 선산, 춘천, 서울사대부속, 천안, 숙초 각1명	18	2.34
계		754	100

표-6에 의하면 754명중 지방고교출신은 16.7%인 126명으로서 서울지역 고교출신이 83.3%으로 압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체의 반수이상의 학생이 서울에 위치한 인문계고교인 진명, 이화, 숙명, 수도, 중앙정신, 창덕, 경기의 8개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계층의

분포가 층류층 이상에만 74.9%만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D. 사회계층과 학교 재학 성적과의 관계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 4년간의 평균성적과 입학시의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72명을 우선 표집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사회계층과 학교성적의 관계

사회계층	상	중	하	계
학교성적				
상	3	5	3	12
중	17	26	4	46
하	5	7	2	14
계	25	38	9	72
df=4.		$X^2=2.9$		$P>0.05$

표-7에 의하면 입학시의 사회계층과 4년간의 평균성적과의 사이에는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E. 사회계층과 졸업후 근무성적과의 관계

간호대학 입학시의 사회적 계층과 졸업후 병원에 근무하면서 나타난 근무성적과의 관계를 앞에서의 우선표집한 72명을 예로 알아보면 표-8과 같이 나타났다.

표-8. 사회계층과 근무성적과의 관계

사회계층	상	중	하	계
근무성적				
상	5	9	2	16
중	11	20	7	37
하	9	9	0	19
계	25	38	9	72
df=4		$X^2=4.5$		$P>0.05$

표-8에 의하면 사회적 계층과 졸업후의 근무성적간에는 무관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F. 사회계층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졸업후 병원사회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직무만

족도는 사회계층별로 어떤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 사회계층별 직무만족도

사회계층	상	중	하	계
구분				
만족하는편이다	2	12	4	18
보통이다	13	19	3	35
불만을 느낀다	10	7	2	19
계	25	38	9	72
$X^2=9.33$		$P<0.01$		

표-9에 의하면 사회적계층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낮은 사실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즉 입학시의 사회계층별로 졸업후 근무에서의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고 찰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의 분포가 층류이상의 계층이 74.9% 임은 한국사회의 계층적 분포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교육대학생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타대학에 비하여 간호대학의 등록비 수준이 낮지않은 사실에 비하면 학자금 부담에 자신이 없는 가정에서는 지망을 기피하고 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출신고교별 경향이 거의 서울 출신이며 그것도 명문교 출신이 표집조사자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입학동기는 하루계층일수록 경제적 이유가 강하며 상류층일수록 추상적인 동기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간호대학이 직업대학으로서 취업기회가 어느정도 보장되고 유학, 이민에의 기회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실정으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서의 간호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능후하다고 본다. 특히 이점은 하영수씨(1968)의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입학동기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동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5년 뒤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해외유학등의 국외 진출하기 위한 동기가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발견해 볼 수 있다.

사회계층적 경향과 학교 재학 성적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졸업후 병원에서의 근무성적과의 사이에도 아무런 상관성을 갖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저학년과는 달리 대학생이 되면서 특히 기숙사생활을 통하거나 4년간에 걸친 간호학 교수들의 지도등 동질적인 조건하에서 학습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영향을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었던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계층적 배경과 간호원으로서의 직무만족도와의 사이에는 높은 계층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보겠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으면 낮을 수록 간호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많으며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것인지 직무자체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환자에 대한 간호활동면에서 오는 것인지 어떤 지를 더욱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V. 맺 음 말

본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 및 졸업생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간호원들의 사회적

중적 배경의 문조에 대한 양적인 분석과 계층적 배경에 따른 그들의 입학동기, 학교성적, 병원에서의 근무성적 그리고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혀보자는 시도이었다. 통계적인 분석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우리나라 간호대학 학생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은 중층이상이다.
2. 간호대학 학생들의 고교출신 배경은 서울 중심의 경향이 발견되었다.
3. 간호대학 학생들의 입학동기는 계층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가 강조됨을 알 수 있으며 계층에 관계없이 해외유학 때문에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4. 사회계층과 학교재학성적과는 별 관계가 없다.
5. 사회계층과 졸업후 병원사회에서의 근무성적간에는 별 관계가 없다.
6. 사회계층과 졸업후 병원사회에서의 근무활동에서 느끼는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는 계층이 높을수록 불만의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같은 제언을 한다.

1. 간호대학 지망의 주요 동기의 하나가 해외유학에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한국 간호업계의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견지에서 간호대학 입학 후의 학생지도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간호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자신들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이념이 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겠다.
2. 병원사회 내에서 간호원의 직무가 전문적 간호원으로서의 직무화가 되도록 더욱 추진되어 모든 간호원이 직무 만족을 할 수 있는 병원환경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References

A. 引用文献

1. Ottawa, A.K.C., *Education & Society* (London; Allen & Unwin, 1957), p. 104.
2. 이상택, 한국사회계층연구(서울: 민조사, 1966), p. 20.
3. Warner, W.L., Socialclass in America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1949).
4. 김선호, 사회와 교육(서울: 교육도서 주식회사, 1964), p. 65.
5. 이상택, 전개서, p. 83.
6. 히네오카 긴, 교육사회학, (동경: 유비각, 1968).
7. 상개서, p. 136.
8. 상개서, p. 136.
9. 김선호, 전개서, p. 108—109.
10. 라동성, 교육대학생의 사회적 배경의 연구 연세 대학원, 1969, p. 36.
11.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 8, No. 6, 1969.

B. 参考文献

1. 최선래, 한국 표준 직업분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0.
2. 김재윤, 사회계층개론, 서울, 민조사, 1967.
3. 이규환, 교육사회학 원론, 중앙교육 출판사, 1962.

==Abstract==

**The social-stratification background
and educational problem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 Mai Kim

*Catholic Medical College, School of Nursing,
Seoul, Korea.*

This study is designed to survey and analyze the distribution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nursing activity as a nurse after graduation.

The sample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777 students and 72 nurses.

For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I.S.C. (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 was applied.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method of Chi-squares was applied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percentage was employed.

The period of collecting data ranged from August, 1972 to Dec. 197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1. The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among the middle classes.
2.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and their working ratings.
3.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educational achievements.
4.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urses social stratification background and their job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interpreted to the sampled research group of this study are not to be extended to any other groups.